北 "핵실험 하겠다"

정부 "실험강행 막자" 예방외교 총력

미·중·일과 대응책 논의…안보리 성명 지지
한·중·일 연쇄 정상회담 핵실험 포기 촉구

북한이 지난 3일 핵실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우리 정부와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한 외교노력을 쉴틈없이 전개해왔다.

정부는 관련국들과 전화로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의도를 분석하면서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예방외교에 총력**=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오던 우리 정부는 큰 충격 속에서도 관련국들과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은 핵 실험을 막기 위한 '예방외교'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 일본 등이 군사제재로 갈 수 있는 관문 격인 유엔 헌장 제7장을 원용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추진할 것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각각 통화한데 이어 5일 아소 다로 일본 외상과 통화를 가졌다. 또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3일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각각 전화협의를 했다.

아울러 정부는 4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낸 다음 날인 7일 역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안보리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4시간 대비 태세 및 北 진의 분석 계속**=정부는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시시각각 북측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 당국자들은 8일 "북한 핵실험 의심지역에 대한 감시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이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핵실험의 특성상 사전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 북핵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협상카드' 차원에서 핵실험 선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핵실험을 한다는 결정 하에 선전포고를 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작업을 계속중이다.

◇**한·중·일 대북 설득방안 모색**=이처럼 엄중한 상황 속에 8일 중·일 정상회담과 9일 한일 정상회담, 13일 한중 정상회담 등 한·중·일 3국 정상의 연쇄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저지가 주된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연쇄회담에서 3국 정상들은 핵실험 포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채택하는 한편 핵실험시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연쇄회동 후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에 지렛대를 가진 나라로 평가받는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지가 향후 전개될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3일 북한이 발표한 핵실험 성명을 전후해 긴박함 속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이고 있는 평양 시내의 거리 표정. 시민들이 궤도 전차 정류장에서 전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일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北노동신문 '선군정치' 발언 소개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천명한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와 관련된 발언들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이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어느 날 '선군혁명'의 나날들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선군정치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고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투쟁하여온 것은 정말 역사에 길이 빛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혁명은 신념으로 개척되고 신념으로 전진하며 신념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혁명"이라고도 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10년 전 1월 어느 날 "억천만번 죽더라도 모든 시련과 고난을 뚫고 사회주의를 지켜나간다"면서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이런 신념, 이런 배짱을 가지고 싸우면 당해낼 자가 없다"고 말했다는 발언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인생관, 신념을 가지고 투쟁할 것"을 역설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北 핵폭탄 20만명 희생 위력

핵실험 前 미국에 최대 3개월 시간 줄 것

평양 주둔 러전문가들 밝혀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하려는 핵무기는 서울이나 도쿄와 같은 대도시를 겨냥해 사용된다면 최대 20만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8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신문은 평양에 있는 러시아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북한의 핵무기는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과 같은 20kt(킬로톤 =1천t)의 폭발력을 갖고 있고 길이는 10피트 정도, 무게는 4t가량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핵무기가 너무 커 북한이 현재 보유중인 미사일에 탑재될 수는 없지만 지상에서 폭발하면 폭발지점에서 5평방 마일 내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핵실험이 이뤄진다면, 미국 군사위성이 최근 관련 움직임을 탐지한 북한 함경북도 길주에서 1마일 깊이의 지하에서가 아니라 횡단식 터널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북한이 이르면 8일 핵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 군 관계자들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 3개월의 시간을 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군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개시하고 금융제재 해제를 하지 않으면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핵실험을 강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유력한 핵실험 시기는 12월 후반부나 내년 1월초"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양에 있는 중국 관리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러시아측의 예상보다 좀 빠른 이달 말이나 11월이 유력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반도 공해 北선박 검문" 미·일 협의 착수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핵관련 물질을 적재한 혐의가 있는 북한 선박을 검문하는 방안에 관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일본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잭 크라우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은 지난 5일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일본 외무성차관을 워싱턴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대북(對北)제재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에 의한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미국측은 핵관련 물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북한에 드나들 때 검문을 인정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전했다.

또 미국 정부는 이러한 제재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과 중국측에 대 북한 에너지공급 및 무역거래를 중단토록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보도했다.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니컬러스 번즈 미국 국무부 차관을 조만간 한.중에 파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뒤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예상했다.

"北 핵실험 임박 안했다" 장성민 '평화포럼' 대표

"北-美대화 재개땐 중단"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핵실험 준비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중국에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의 장성민 대표 〈사진〉는 8일 북핵실험에 정통한 중국 외교가 소식통의 전언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장 대표는 "영국 더 타임스 등 일부 외신이 북한의 핵실험이 금명간 이뤄질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북한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중국측에 전해왔으며, 그 근거로 아직 북한 주민과 군에 비상경계령이 발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고 중국 소식통이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핵실험을 실시할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북한이 내부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은 미국이 핵실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격적인 대북대화를 제의해 오면 이를 상당히 검토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면서 "미국과 직접 대화에 들어가는 순간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중단하고 핵발전소 운영도 일시 중단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